제주도 무가와 『삼국유사』의 삶의 의미 구현 방식

신연우*

[요약]

『삼국유사』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일관된 시각으로 다루기에는 기존의 고승전 체계로는 무리가 있다. 역사서로 간주할 수도 없다. 단순한 설화집이라고 하기에는 편목구성이 짜임새가 있다. 우선은 『삼국유사』를 왕력과 기이의 역사 기술 중심 부분과, 흥법 이하 인물의 이야기 중심 기록이라는 틀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를 병치하고 있는 제주도 무가이다. 제주도 큰굿은 초감제와 기타 여러 가지 제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감제는 우주와 여러 나라, 집안의 역사를 기술하며, 불도제 이하의 여러 제차에는 다양한 본풀이 즉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점은 제주도 무가와 『삼국유사』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삼국유사』의 구성이 무가에서 왔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둘의 유사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차와 무가들은 일상의 속(俗)의 세계로부터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양상을 논의의 실마리로 삼아 역사, 설화, 노래라는 항목으로 『삼국유사』 기록과 비교 검토해보았다. 그리고 보니 역사, 허구적 이야기, 노래,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세계와 맞서서 의미를 찾고 자아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인 듯하다. 『삼국유사』도 제주도 굿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서로간에 어떤 영향 관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듯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사람들의 삶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응답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 속에서 태어나 살며, 세계의 정체를 이야기를 통해 탐구하며, 자아의 정서와 욕망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다. 이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기에 『삼국유사』는 우리의 뿌리를 찾고 시대를 넘어서는 고전이며, 제주도 굿은 오랜 기간 제주도민의 정신적, 종교적, 정서적 위안이 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겠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결국 성과 속은 혼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같은 힘의 다른 방향 성일 뿐이라는 것, 선과 악은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같은 영향력을 인간에게 행사한다는 것, 그래서 전개 과정은 이질적이면서 결말에 이르러는 같아진다는 것, 이러한 신화적인 구성이 제주도 무속 서사시 뿐 아니라 『삼국유사』에서도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삼국유사, 제주도, 무가, 역사, 설화, 노래, 깨달음

I. 삼국유사 - 고승전으로서의 생경함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왕력, 기이편과 흥법, 탑상, 의해, 신주, 감통, 피은, 효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국유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고승전(高僧傳)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만, 전체 분량의 절반이나 되는 왕력이나 기이편이 고승전에 편목되어 있는 것은 의아하다. 그것도 가장 앞머리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 구도에 의문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기백은 왕력과 기이의 이질성 때문에 『삼국유사』를 고승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¹⁾ 정천구는 기이편이 국왕 중심이어서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기전체(紀傳體) 사서(史書)의 본기(本紀)와 유사하면서도, “『삼국유사』는 삼국의 시초를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고조선에서부터 기록하고 있고, 또 연대기적 서술에서도 벗어나 있으며, 신라 국왕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도 상당수의 국왕을 빠뜨리고 있다.”²⁾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강엽은 기이편의 기사들이, 천지인(天地人)이 상호 조응할 때 이상적인 흥성과 어긋날 때의 불가피한 쇠망을 드러내 보이며,³⁾ 흥법과 탑상편은 기이편과 달리 탈신화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였다.⁴⁾ 이를 통해 『삼국유사』 전편을 일관된 시각으로 보는 것과 낱낱으로 보는 것 사이에서 입체적 조망의 필요

1) 이기백, 『『삼국유사』의 편목 구성』, 동국대개교80주년기념논총, 『불교와 제과학』(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981~982쪽.

2) 정천구, 「三國遺事와 中·日 佛敎傳記文學의 比較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34쪽.

3) 이강엽, 『『삼국유사』 기이편의 서술원리』, 『열상고전연구』 26집(열상고전연구회, 2007), 513쪽.

4) 이강엽, 『『삼국유사』 흥법·탑상편의 탈신화화 전략』, 『어문학』 제110집(한국어문화회, 2010), 185~213쪽.

성을 추구하였다. 『삼국유사』 연구의 큰 과제라 할 것이다.

『삼국유사』의 부분과 전체를 함께 일관된 시각으로 다루기에는 기존의 고승전 체계로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역사서로 간주할 수도 없다. 단순한 설화집이라고 하기에는 편목구성이 짜임새가 있다. 우선은 『삼국유사』를 왕력과 기이의 역사 기술 중심 부분과, 흥법 이하 인물의 이야기 중심 기록이라는 틀로 크게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역사와 인물의 이야기를 병치하고 있는 제주도 무가이다. 제주도 큰굿은 초감제와 기타 여러 가지 제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감제는 우주와 여러 나라, 집안의 역사를 기술하며, 불도맞이 이하의 여러 제차에는 다양한 본풀이 즉 인물 중심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점은 제주도 무가와 『삼국유사』의 구성 요소를 비교해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삼국유사』의 구성이 무가에서 왔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둘의 유사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육지의 다른 굿보다 제주도 굿이 일반신 본풀이, 당신 본풀이, 조상신 본풀이 등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갖추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제주도 무가를 수록한 대표적인 자료로는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⁵⁾과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⁶⁾이 있으나 이들은 제의 현장보다는 무가 중심으로 채록되어 있다. 즉 다양한 무가가 충실하게 조사되고 나열되어 있지만, 굿이 실제로 어떻게 연행되는지 알 수 없다. 최근에(2008년) 굿 현장에서의 진행 과정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자료를 채록한 책이 출간되었다. 내용은 2006년 조천읍에서 집안의 조상과 4·3 사건 당시 희생된 동복리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흘간 행해진 시왕맞이 굿이다.⁷⁾ 현장 속에서 무가가 어떻게 구연되는지 잘 보여준다. 이들 자료를 두루 살펴어 굿의 진행과 구성을 살펴보면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을 고찰하기로 한다. 물론 『삼국유사』가 문장으로만 구성되었기에 본고에서도 의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가를 살핀다.

5)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각, 2007), 1~859쪽.

6)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민속원, 1991), 1~922쪽.

7)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복 정병춘대 시왕맞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700쪽.

Ⅱ. 역사, 설화, 노래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굿의 제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날 초감제 - 초상계 · 추물공연 - 석살림

둘째날 시왕맞이(초감제, 방광침, 추물공연, 체서본풀이, 석살림, 나가시리놀림, 군병지사킴, 세경본풀이)

셋째날 시왕맞이(넉들임 - 액맥이 - 칠성본풀이 - 공시풀이 - 상당숙임 - 군졸지사킴 - 막방광 - 영계돌려세움)

넷째날 군웅만관 - 선양풀이(뚝제) - 도진

우리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자.

(1) 첫째날과 둘째날 처음에 초감제를 한다. 초감제는 베포도업침, 날과국섬김, 신도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원(始原)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집약적으로 제시한다.

(2) 제차 사이사이에 신격의 유래 설화인 본풀이가 불린다. 차사본풀이, 지장본풀이, 세경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 그리고 뚝제에서 궀내깃도본풀이가 불렸다. 그리고 본주와 같은 처지로 여겨지는 광청할망본풀이가 사이사이에 여덟 번이나 반복 구연되었다.

(3) 새드림 같은 주술적 노래와 서우젯소리 같은 서정적 노래가 사이사이 불린다. 팔자 굿은 인생을 소재로 한 지장본풀이는 본풀이면서도 노래로 불린다.

이 밖에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넉들임, 공시풀이 등 조상과 후손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제차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정집에서의 굿이기에 그 맥의 조상과 자손을 연관 짓는 것이다. 만일 이 관계를 가정집에서 나라로 확대한다면 조상의 일은 역사로 기술될 것이다. 후손과 조상이 계속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는 것과 같이 나라의 조상들도 후손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제차와 무가들은 일상

의 속(俗)의 세계로부터 종교적이고 성스러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양상을 논의의 실마리로 삼아 역사, 설화, 노래라는 항목으로 『삼국유사』 기록과 비교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역사

『삼국유사』는 왕력(王曆)으로부터 시작한다. ‘왕력’은 연표 구실을 하는 것이라 건조한 사실의 나열이 연대순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왕조에 따라서 건국주로부터 2대, 3대… 마지막 왕까지 차례로 나열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기이편’은 삼국 이전의 오래된 역사 기록을 실었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왕의 사적이지만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야기’로 제시되는 것이 많다. 기이편의 처음 기사는 고조선조로 바로 단군신화이다. 고조선조는 고기(古記)의 기록이라 하며 환웅 웅녀 단군의 설화를 신고, 이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드러내기 위해 요임금 즉위 50년의 일이라고 명기하고 또 당의 배구전과 통전 등 역사서를 인용하였다. 역사 기록을 그대로 드러내는 측면과 역사를 설화화하여 드러내는 측면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초감제 무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초감제 말미가 지나면 바로 베포도업침으로 들어간다. 베포도업침은 “우주 개벽, 일월 성신의 발생, 국토의 형성, 국가의 발생 등 지리적, 역사적 사상(事象)의 발생을 차례 차례 노래해 나간다.”⁸⁾ 우주가 형성된 후에 이승의 역사로 중국 왕조를 나열한다.

유왈 유소씨도 도업, 수인씨도 도업, 여와씨도 도업, 태후복혜씨 도업,
 염저실농씨 황제에 현웅씨도 도업
 전우 고양씨 주안씨, 열인씨는 호양씨 혼돈씨 소호금천씨도 도업하난

8) 현웅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22쪽.

.....

영평 팔년

모홍골은 고량부(高良夫) 삼성왕(三姓王) 도업허고, 진통경(김통정) 향파두리 만리
도성 둘루난, 정의 정당은 이십칠 도, 대정 일격은 삼십팔 련, 주의 모관 팔십여 리
영내 읍중 도성 삼문 이서당 향교 삼천 살았수다 (『시왕맞이』, 44~46쪽)

이 외에도 심방 자신들의 조상을 옛날 사람부터 지금까지로 불러들이고 본주의 조상도 거듭해서 열거한다. 이런 열명은 그대로 그 집안과 심방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는 마치 『삼국유사』의 왕력에서 왕명이 나열되는 것과는 유사한 느낌을 들게 한다. 가령 초감제 제차 중 신도업은 19쪽에 이르는 기다란 신격의 이름을, 간략한 사항과 함께 열거해준다. 처음에는 천지 자연 신격의 나열로부터 심방의 조상들로 차례로 읊는다.

임신중에 올라사민 청룡산은 대불법(大佛法) 천지옥황상저님 지부스천대왕
산 츠지는 산왕대신(山王大臣) 물 츠진 다서 용궁(龍宮) 신도업 드립네다.
절 츠지는 서산대서(西山大師) 육한서 스명당(四溟堂) 전하님
천왕불도 지왕불도 인왕불도
석하산은 석불법 여리신전 멩진국이 삼불또(三佛道) 할마님 혼합천주 별금산
하느님

.....

조천 정씨 하르밧님/ 몸받은 조상 신도업 드립네다.
벵디 진밧가름/ 돌코살낭 상가지 솟아나던 고씨 대선성님/ 신도업 드립네다.
서김녕(金寧) 임씨 대장간 놀던 선성님도/ 신도업 드립네다. 임씨 삼촌/신도업
드립네다.

신이 아이 초싱질 발파 주난/ 양씨 삼촌/ 몸을 받은 부모 조상/ 황씨 임씨 김씨
이씨 하르방 임씨 할마님/ 신도업 드립네다.

이상질 발파주난/ 조천 정씨 하르밧님/ 신도업 드립네다. (『시왕맞이』 62쪽, 71쪽)

왕력은 신라 중심으로 혁거세로부터 시작한다. 아무 곳이나 마찬가지로만 고구려 한 부분을 보자.

제 18대 국양왕, 이름은 이숙이다. 어지라라고도 한다. 갑신년에 즉위하여 8년간 다스렸다.

제 19대 광개토왕, 이름은 담덕이다. 임진년에 즉위하여 21년간 다스렸다.

제 20대 장수왕, 이름은 신련이다. 계축년에 즉위하여 79년간 다스렸다.

신라 부분은 좀더 자세하여 가족 관계를 더 보여준다. 하나만 든다.

제 19대 눌지마립간, 내지왕이라고도 한다. 김씨이다. 아버지는 내물왕, 어머니는 내례희 부인 김씨로 미추왕의 딸이다. 정사년에 즉위하여 41년간 다스렸다.

이는 초감제에서 신들을 나열하다가 심방네 조상은 가족 관계가 더 잘 드러나는 것과 유사하다. 『삼국유사』는 신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신라 쪽은 가족관계를 더 잘 드러낸 것과 비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역사는 왕과 인간의 역사이지만 한 데 반해, 제주 무가의 역사는 우주 창조, 일월 조정과 인세차지 경쟁 등 우주의 역사로부터 심방이나 본주의 가문과 개인사가 중심이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삼국유사가 삼국사기가 가진 유학적 사관의 협소함을 불교를 통해 넘어서고 있기는 하지만 무속은 유교니 불교니 하는 이념과 무관하게 우주 속에서 전개되는 역사와 개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두 번째로 역사를 설화적 요소로 바꾼다는 공통점을 살펴보자. 초감제는 보통 신을 열거하는 것과 함께 천지왕본풀이라는 서사무가를 구송한다. 『시왕맞이』에서는 특이하게 초감제에서 광청할망본풀이를 하였다. 본주의 어머니 원씨가, 광청할망본풀이의 내용처럼, 간제비를 주웠으나 무업을 하지 않아 결국 본주가 신병을 앓게 된 일이 있었다. 임신했다가 죽고 만 광청애기

가 송동지의 딸에게 빙의해 병이 든 것을 낫을 해서 고친 것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광청할망을 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광청할망본풀이가 여러차례 구송되었다. 광청애기라는 처자가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하게 되고, 송동지를 따라가려다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결국 신이 되어 좌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무기는 서울로 진상 가는 송동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또 조선 인조7년부터 약 250년간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금지했던 일도 언급된다. 이런 점을 통해서 이 조상신 본풀이 무가가 역사이면서 신화라고 할 수 있다.⁹⁾ 역사와 이야기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천지왕본풀이를 구송한다. 천지왕본풀이는 보다 이른 시기인 천지개벽 시의 사건을 다루었다. 하늘과 땅이 구비되었으나 들썩이나 있는 해와 달을 조정한다거나 지상의 악인인 수명장자와 싸우는 일과 관련하여 천지왕이 지상의 여성과 결합하여 아들 형제를 낳는 내용의 서사무가이다.

이러한 역사의 이야기의 결합, 역사의 설화화는 기이편에 자주 나타난다. 바로 첫기사인 단군신화부터 이 땅의 역사 시작이 이야기로 형상화되었다. 이어지는 위만조선이나 마한, 발해, 이서국 등 역사 기록뿐인 것과 함께 고구려 등 삼국의 건국신화와 왕과 연관된 신이한 사적들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 많다. 물론 초감제에서는 신명이 많이 나열되고 서사무가가 하나 정도 구연되는 것에 반해서, 『삼국유사』에서는 왕력보다는 기이편이 더 강조되어 있고 이야기의 비중이 훨씬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사와 설화를 혼합하는 것, 역사 부분과 역사를 포함한 이야기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는 점은 유사한 성격이다.

2. 설화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편은 설화보다는 역사기술의 측면이 강하지만

9) 김현선, 현용준,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보고사, 2006), 43쪽.
이수자, 『광청애기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上』(국립민속박물관, 2009), 81쪽.

홍법 이하 효선편은 역사를 벗어나는 초월적 세계를 강조하는 무시간성의 설화적 측면이 강하게 부각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대다수이다. 홍법은 이 땅에 불교를 들여온 안팎의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탑상은 탑과 불상, 절에 대한 기록이지만 미시랑과 진자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분황사 천수대비, 낙산이대성 관음 조신, 보절도 태자 전기, 월정사의 다섯 성중 등 인물 중심의 이야기도 많다. 의해편과 신주편은 본격적인 고승담이다. 감통편도 모두 인물담이며 피은과 효선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삼국유사』는 왕력과 기이의 역사물, 그리고 홍법 이하 효선까지의 인물 설화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제주도 큰곳에서 초감제를 처음에 하고 이어서 다양한 본풀이를 하는 것의 구도를 상기할 수 있다. 큰곳의 제차와 본풀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초감제 - 배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 불도제 - 생불할망본풀이
- 초공제 - 초공본풀이
- 이공제 - 이공본풀이
- 삼공제 - 삼공본풀이
- 시왕제 - 강남차사본풀이
- 맹감제 - 맹감본풀이(사만이본풀이)
- 세경제 - 세경본풀이
- 칠성제 - 칠성본풀이
- 성주제 - 문전본풀이
- 본향제 - 본향당본풀이
- 일월조상제 - 균웅본풀이 등

10) 이수자,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 327쪽. “초공제, 불도제” 등의 표현은 제주 곳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재차의 일관성 있는 이해를 위하여 이수자 선생의 명명을 그대로 이용한다.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은 제주 무속의 신격의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었고, 천지왕 본풀이는 세계의 시작을 말하는 설화로 역사적 의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불도제의 생불할망본풀이로부터 그 이하의 본풀이들은 역사적 맥락과 큰 관계가 없는 설화 또는 신화들이다. 오히려 역사의식으로부터 멀어지거나 거부하는 신화들이다. 초공본풀이의 삼뎡두가 신이 되고 노가단풍 아기씨가 신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종교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농경신으로서 역사적 전개가 아니라 되풀이되는 농경의 순환적 현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맹감본풀이는 해골을 숭배하여 복을 얻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것도 시간과 무관하게 반복됨으로써 의미를 갖는 신화이다.

본향당 본풀이는 마을마다 조금씩 다른 내용인데 이것은 마을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 마을의 역사를 신화화한 이야기이다. 역사와 이야기를 함께 엮은 것으로 굿 처음의 초감제에서 역사를 다룬 것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역사적 소재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굿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굿에서나 그렇듯이 가장 먼저 초감제를 한다. 베포도업침을 하여 역사를 보여주고 그 중에 역사와 연관 있는 서사무가를 포함시킨다. 그 뒤에는 의례의 사이사이에 체서본풀이, 지장본풀이, 세경본풀이, 사만이본풀이, 칠성본풀이 등이 구송된다. 이것들도 역사로부터 벗어나는 보다 보편적이고 원형적인 소재를 다룬다. 차사본풀이에서 죽음의 문제, 지장본풀이에서 불행한 운명의 문제, 세경본풀이의 농경, 사만이본풀이의 해골 숭배 등이 그렇다.

결국 제주도의 큰굿이나 시왕맞이 굿에서의 무가도, 『삼국유사』의 왕력, 기이와 그 이하의 흥법에서 효선까지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설화의 이중 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간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역사와, 시간성을 배제하는 초월 또는 원형의 설화성이라는 이중 구성 요소를 갖는다.

앞부분에 역사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이어서는 설화성을 부각시킨다는 구성이 양자에 공통된다고 하겠는데, 이러한 전략의 의의는 무엇일까?

우선 역사의 강조는 지금 여기의 근원을 밝히자는 것이다. 시간의 쌓임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삼국유사』 기이편은 삼국 이전부터 시작해서 삼국의 건국과 함께 주로 신라의 전개 그리고 멸망을 다룬다. 고구려나 백제가 망한 이유를 들고, 신라 또한 망했으나 그것은 결국 고려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김부대왕 조의 태조 왕건을 들어 암시한다. 이러한 진술의 궁극적 목표는 몽고침략이라는 일연 당대 현실 문제의 극복과 연관 있을 것으로 짐작하게 된다. 역사의 흥망과 민족적 시련을 역사의 전개 과정을 통해 검토하고 지금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의가 있다.

제주도의 초감제는 우주 개벽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신화적 황제와 문화영웅들, 우리나라의 생성과 제주도 삼성의 솟아남, 그리고 제주의 각 신격들의 나열을 지나 곶을 하는 지금 이곳의 마을 또는 본주집으로 집약되어 그 마을이나 집안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긴 과정은 지금의 삶이 지금의 존재만이 아니라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세상의 처음으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이 연속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역사는 삶의 한쪽 기둥일 뿐이라는 인식이 『삼국유사』나 제주도 무속에 있다. 역사는 삶의 전반적 틀을 이룬다. 우리는 역사가 만들어놓은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은 동시대의 누구나가 겪는 동질적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방법도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나 동질적이지 않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쌍둥이도 다른 삶을 사는 법이다.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도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인은 역사 속에 살면서도 역사 안에 갇히지 않는다. 역사를 벗어나고 넘어서는 의미를 찾는다. 그 의미는 설화를 통해서 암시된다.

설화가 갖는 보편성은 역사가 주는 특수성을 넘어선다. 같은 설화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며 아득한 옛날부터 최근까지 같은 모양으로 전래되어 왔다는 사실은 설화의 보편성을 강하게 말해준다. 제주도 곶에 다양하게 나타나

는 여러 가지 무가들은 보편성을 띠면서도 역사를 넘어서서 개인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암시이다. 가령 초공본풀이는 여성의 수난이라는 문제, 아기씨의 죽음과 재생과 연관된 희생과 풍요의 문제, 죽음에 닿아 있으면서 초월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 등을 제기한다.¹¹⁾ 『삼국유사』에 많이 등장하는 설화도 인간의 정신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가령 구도설화의 하나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은 부처 만나기라는 소재를 통해 진리에 다가서는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¹²⁾ 학이 떨어뜨린 깃털로 보니 사람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여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했던 신희거사 이야기, 정성으로 염불을 하여 극락으로 오른 옥면 이야기,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생의 문제, 희생의 문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문제 등 살면서 겪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사색하게 한다. 이런 문제들은 먹고 사는데 관계없으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는 바로 인간으로서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삶의 과제로 인식된다. 삶의 의미는 역사에서 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역사만으로 답을 얻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삼국유사』와 제주도 굿은 모두 역사와 설화를 결합하는 이야기 방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양자 간에는 비중의 차이는 있다. 『삼국유사』는 기이편의 분량이 많은 반면 제주도 굿에는 초감제에서 다루는 역사는 비교적 짧고 공식구적이다. 『삼국유사』의 설화는 많은 경우 역사와 연관 지어 기술되고 있는데 제주도 굿의 무가는 비역사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삼국유사』가 보다 역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하게 한다. 이는 결국 일연 당대가 역사적 무게를 더 느끼던 시대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몽고의 침략으로 반식민지가 되어가던 고려의 王師로서 역사의 무게와 과제의 압박을 더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11) 신연우,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제31집(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344~368쪽.

12)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에서 본 숭고와 비속』,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집문당, 1990). 신연우,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부처만나기』,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민속원, 2008), 114~137쪽.

중요한 것은 역사와 설화의 두 가지 양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삶은 역사나 허구 한쪽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둘이 서로 교차하면서 가리키는 것이 현실이고 삶이다. 역사에 닿을 내리지 못한 허구는 위태롭고, 허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역사엔 건질 것이 없다.”¹³⁾ 본고는 이와 같이 역사와 허구를 함께 병존시켜야 삶의 의미를 제대로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삼국유사』와 제주도 무속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노래

역사가 교술갈래로 들어와 있고 설화가 서사갈래로 자리를 잡은 것에 더해 『삼국유사』나 제주도 굿은 적으나마 노래를 통해 서정 갈래의 자리도 마련해주고 있다. 더욱이 양자 모두 완전한 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교술적 또는 주술적 범주를 떨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서정적 노래를 가지고 있다.

『삼국유사』는 44개조에서 48수의 찬시와 널리 알려진 대로 14수의 향가를 수록하고 있다. 찬시는 한시체로 되어 있어서 서정시라고 하겠지만 배경 이야기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서 다분히 교술적이다. 가령 〈元曉不羈〉조에 붙여진 찬시를 보면 이와 같다.

角承初開三昧軸 각승으로 처음 삼매경의 축을 열었고
 舞壺終掛萬街風 춤추는 뒤웅박 마침내 온 거리를 채웠네
 月明瑤石春眠去 달 밝은 요석궁 봄잠을 깨고
 門掩芬皇顧影空 문 닫힌 분황사에서 돌아보는 빈 그림자

이 찬시의 각 행은 모두 원효의 행적을 소재로 한다. 1행은 쇠뿔 사이에 버루를 놓고 금강삼매경소를 써내려갔던 일, 2행은 속인의 복장으로 광대의

13) 김한식, 『폴 리콰르의 이야기해석학』, 『국어국문학』 146(국어국문학회, 2011), 211~242쪽.

큰 박을 얻어 등에 지고 다니며 온 백성이 아미타불을 알고 부르께 한 일, 3행은 요석공주와 가연을 맺어 설총을 얻은 일, 4행은 분황사에서 화엄경을 지은 일을 시로 읊었다. 다시 말하면 <원효불기>조의 내용을 모르면 이 시의 의미는 전달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 한시는 서정이라기보다 교술이라고 할 것이다. 찬시의 대다수는 이와 같은 방식이거나 조금 더 서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교술과 서정의 사이에 있다.¹⁴⁾

향가의 경우도 용천사의 혜성가처럼 주술적인 효용을 강조하는 것이 있다. 용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 부르자 혜성의 변괴가 사라지고 왜군이 물러갔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찬기파랑가>나 <제망매가> 같은 서정시도 있다.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굿에서는 노래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자주 불렀다. 서사무가인 지장본풀이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노래는 교술 주술 서정이 섞여 있다. 푸다시, 덕담, 서우젯소리, 담불소리, 새드림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노래들이 번갈아 가며 불린다. 새드림은 제장 가운데에 본주를 얹혀 놓고 새(邪) > 새, 鳥) 즉 사된 기운을 몰아내는 의식이다. 이 제차에서 불리는 노래는 새를 날려 보내듯 사되고 악한 기운을 쫓아내는 주술적 기원의 노래이다.

온갖 새 나는고

머리론 두통새

(양쪽 신칼치매로 본주를 두 번 내리친다.)

귀으론 늘귀새

(양쪽 신칼치매로 본주를 두 번 내리친다.)

코으론 부룽새

(다시 양쪽 신칼치매로 본주 머리 위로 번갈아 넘긴다.)

입으론 악심새

가심엔 이열새

14) 고운기는 주관적 정서의 표출이 두드러진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서술적 정보 전달의 기능과 환기 기능이 함께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1993), 158쪽.

(양쪽 신칼치매로 본주를 두 번 내리친다.)

오금엔 즈작새
 해말럼 주는고
 송엄(凶險)을 주는고
 물 주며 드리자
 쌀 주며 드리자¹⁵⁾

그런가하면 덕담으로 거듭 불리는 노래는 서정성을 띤 교술이다.

어제 오닐은 오닐이라
 날도 좋구나 오늘이라
 들도 좋다. 오늘이라
 내일 장상은 오늘이면
 브람산도 놀고 가자
 구름산도나 놀고 쉬자
 이내 보기엔 내천이로뵈
 실금살착 생겨드리자 고스로구나
 생겨드리자
 굿이로구나
 물 베포 지황(地皇) 베포
 인황(人皇) 베포 도업 땅 베포 국 베포
 제청 도업을 제이르난¹⁶⁾

이 노래는 원래 신을 청하고 신들에게 좋은 곳을 하니 잘 놀다 가리는 청유인 듯하다. 그런데 앞의 가사만으로는 오늘 같이 좋은 날 잘 놀고, 매일 장상 오늘 같으면 좋겠다는 서정적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 노래는 특히 『병

15)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대 시왕맞이』, 282쪽.

16) 강정식·강소전·송정희, 위의 책, 194쪽.

와가곡집』에 실려 있는 조선조에 불린 시조와 유사한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오늘이 오늘이쇼셔 매일의 오늘이쇼셔
 저뜨러지도 새지도 마르시고
 미양에 주야 장상에 오늘이 오늘이쇼셔 (병가(瓶歌) 10)¹⁷⁾

원래 1610년 남원의 양덕수가 편찬한 『양금신보』에 실려 있고, 정유재란 때 끌려간 도공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불렀고 그 후손들은 뜻도 모르면서 “오늘이 오늘이라…”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여하간 이 노래의 원적이 무가였는지 잔치노래가 무가로 수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정적 느낌과 교술적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이다.

역사적인 것, 허구적인 것, 정서적인 것 세 가지를 구유(具有)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역사적인 것과 허구적인 것은 서로를 보완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보완제이다. 역사와 허구는 다같이 객관적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에 대한 인식, 자아의 세계와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러나 자아는 자아 자체로 세계와 대등하고자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욕구한다. 거리를 두고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소망하는 대상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거리감 없이 일체화되는 느낌이 자아를 만족시키고 위안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나 분노, 절망, 사랑의 환희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는 이야기보다는 노래나 시가 낫다.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¹⁸⁾

그리고 보면 역사, 허구적 이야기, 노래, 이 세 가지는 사람이 세계와 맞서서 의미를 찾고 자아의 정서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인 듯하다. 『삼국유사』도 제주도 굿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삼국유사』도 제주도 굿도 서로를 몰랐을 것이다. 서로간에 어떤 영향 관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듯이 필수적인

17) 심재환 편저, 『교본 역대시조전서』(세종문화사, 1972), 734쪽.

18) 김한식, 『폴 리콰르의 이야기해석학』, 234쪽.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사람들의 삶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응답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준다. 사람들은 누구나 역사 속에서 태어나 살며, 세계의 정체를 이야기를 통해 탐구하며, 자아의 정서와 욕망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다. 이 세 가지를 구유하고 있기에 『삼국유사』는 우리의 뿌리를 찾고 시대를 넘어서는 고전이며, 제주도 곳은 오랜 기간 제주도민의 정신적, 종교적, 정서적 위안이 되어 왔던 것이라고 하겠다.

Ⅲ. 깨달음과 성스러움

『삼국유사』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구도 이야기가 여럿 들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짝이 되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뜻 보면 우열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제시되어 있으면서도 결국은 모두가 깨달음에 이른다는 점이다. 가령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보면, 둘 다 풍채와 골격이 남다르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뜻이 있어 서로 벗이 되어 도를 구하게 되었다. 무등곡 북쪽과 동쪽에 각기 방을 짓고 수도에 정진하였다. 어느날 굶고 아리따운 처자가 찾아와 재워주기를 청하였는데 박박은 수도의 깨끗함을 이유로 거절했고 부득은 중생을 보살피는 것도 보살행이라고 하며 방으로 들이고 해산을 도와주었다. 박박은 부득이 계율을 어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튿날 찾아와보니, 부득은 연화대에 올라 미륵존상이 되어 있었다. 경쟁담이라면 승패가 갈린 여기서 이야기가 멈추었을 터인데 부득이 씻고 남은 물에 목욕을 하자 박박도 무량수 부처가 되었다.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서 욕망에 빠졌던 조신도 결국은 부처를 만난다. 〈광덕과 엄장〉 이야기에서 광덕의 아내와 동침하려 한 엄장도 잘못을 뉘우치고 도를 닦아 극락으로 갔다. 이 점에 대하여는 이미 허원기가 구도설화의 인물형을 성스런 세계에 대한 농후한 믿음을 가진 인물과 속된 세계에 대한 섬세한 인정을 가진 인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인물형이 설화를 통해 논쟁을 벌이지만 그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않

는다. …… 서로를 왜곡하여 파탄으로 이끌지 않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성 불을 향해 나아간다.”¹⁹⁾고 설명한 후, 이강엽, 이강옥 등이 유사한 지적을 했다.²⁰⁾ 경쟁담과 유사한 구성을 가지는데 한쪽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고, 결국은 모두 부처를 만나거나 극락으로 가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일상의 상식으로는 익숙한 것이 아니다. 심지어 조신 같은 사람도 의상 같은 진지한 구도자와 마찬가지로 부처를 만난다고 한다면, 욕망을 다 저버리는 힘든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이 들게 된다. 이러한 특수한 구성의 연원은 이강엽, 이강옥 등 연구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세속과 초세속을 지양하는 서술미학과 사상에 기인하거나, 공동의 승리를 통해 지나친 신화화를 벗어나려는 보다 합리적인 이유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해명보다는 이러한 구조 자체이다.

이 때 흥미롭게도 제주도 서사무가에서 결말에 신격이 되는 양상이 유사하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오곡의 종자와 메밀 씨를 가져다주는 농경의 신으로 좌정한다. 그런데 자청비를 괴롭히고 강간하려했던 정수남도 목축의 신으로 좌정한다. 하늘 옥황의 아들 문도령도 상세경을 차지하는 신으로 좌정한다. <문전본풀이>는 계모설화라고 할 수 있다. 외지로 장사를 떠난 남선비를 노일저대귀일이딸이 속이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한다. 남선비의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으러 갔다가 노일저대귀일이딸에게 죽는다. 남선비를 데리고 남선비의 고향으로 돌아온 노일저대귀일이딸은 남선비의 일곱 아들들을 죽이려다가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에게 죽는다. 그런데 신화의 결말은 등장인물 모두가 신으로 좌정한다는 내용이다.

남선비는 주먹직이 나무목신 들어사고 (즉 울레 양쪽의 株木직이 신이 되고)

어머님은 추운디 물 속읍에 있어나니 조왕할땅 들어삼서

큰성님은 청대장군 들어삼서 셋성님은 흑대장군 들어삼서

19) 허원기, 『『삼국유사』 구도 설화의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36쪽.

20) 이강엽, 『『삼국유사』 홍법 탑상권의 탈신화화 전략』, 『어문학』 제110집(한국어문학회, 2010), 205~210쪽.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 제5호(국문학회, 2001), 35~39쪽.

.....

나는 일문전(대청마루 앞쪽)으로 들어상 안문전 열여덟 훑이하고
 빗문전은 수물여덟 훑이하고
 문전 모를 공스가 있으며 주인 모를 손님이 있으리라
 나 받다 남은 것은 조왕할망 어머님전 드리리다
 노일저대구일이딸은 칙간 동투로 들어사기 마련²¹⁾고

〈초공본풀이〉에서는 어머니와 세 아들이, 〈이공본풀이〉에서는 어머니와 장자의 딸, 사라도령, 신산만산한락궁이 등 여러 인물이 신으로 좌정한다. 〈칠성본풀이〉에는 딸이 낳은 일곱 뱀이 뒤결이나 고향의 부신(富神)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이다. 즉 제주도 서사무가에는 주인공만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물 심지어는 주인공에 적대적인 인물까지도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왜 주인공과 부인물 또는 적대적 인물까지도 신이 될까? 그것은 성스러운 존재와 비속한 존재가 모두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데 이유가 있다. 불은 잘 쓰면 유용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하다. 날카로운 칼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것은 위험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은 유용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다. 유용과 위험은 같은 힘에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나 개념상으로 구분된다. 성스러운 것과 비속한 것은 같은 힘의 상반되는 실상이다. 같은 힘이 유용하고 성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위험하고 비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인간에게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 힘에 대하여 인간은 위축되고 그 힘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또는 그 힘으로 인한 위험을 막아 달라고 기원한다. 카이유와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의 고유한 영역 안에서는 극단적으로 서로 적대적이나 그들 둘 모두 세속세계와는 대립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세속세계의 관점으로 볼 때 동일시되고 있는

21)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201~202쪽.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은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유효성은 더 강력하다. 거기서 바로 더러움을 축복으로 바꾸고자 하는 유혹이, 또 불순한 것으로 정화의 도구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이 생긴다.²²⁾

자청비나 녹디생인만큼이나 정수남이나 노일저대귀일이딸은 강하다. 강한 존재는 강한 신이 될 수 있다. 강한 신은 사람이 잘 섬기면 강한 힘을 베풀어 준다. 일상을 넘어서는 성스러움의 두 가지 다른 표현일 뿐이다. 자청비나 녹디생인을 잘 섬김으로써 복을 얻는 것처럼 정수남이나 노일저대귀일이딸을 잘 위함으로써 재앙을 막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의상과 같이 성스러운 세계에 대한 농후한 믿음을 가진 인물과 속된 세계에 대한 섬세한 인정을 가진 인물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와 유사한 논리로 설명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강옥이 설명했듯이, 초세속을 지향하면서도 세속을 적대시할 수 없고 오히려 세속과 초세속이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지는 논리이다. 조신이 추구했던 것 같은 인간적 욕망을 끊어야 하지만, 사실은 중생계는 부처계에 맞닿아 있다. “중생 세계에 대한 애착의 끝에서는 늘 중생 세계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본래 세계, 즉 부처 세계를 만나게 된다.”²³⁾

결국 성과 속은 혼합될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같은 힘의 다른 방향성일 뿐이라는 것, 선과 악은 뚜렷이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같은 영향력을 인간에게 행사한다는 것, 그래서 전개 과정은 이질적이면서 결말에 이르러는 같아진다는 것, 이러한 신화적인 구성이 제주도 무속 서사시 뿐 아니라 『삼국유사』에서도 규지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추구하는 것은 깨달음과 성스러운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중생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중생 세계로 돌아오며, 성스러운 것은 속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역시 속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같

22) 로제 카이유와, 권은미 옮김, 『인간과 甕』(문학동네, 1996), 62쪽.

23) 허윤희, 『『삼국유사』 구도 설화의 의미』, 53쪽.

은 것의 같음과 다름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이 점 역시 영향 관계로 설명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고방식에서 이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IV. 마무리

『삼국유사』가 기이편의 역사물 기술과 그 이하 여러 편목의 설화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체제는 동아시아의 일반적인 고승전의 체제가 아니어서 의아하며 이러한 구성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서 우리의 논의는 시작되었다. 역사와 설화를 함께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굿에서 그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삼국유사』와 제주도 굿 모두 역사, 설화, 노래를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둘이 어떤 영향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영향이 아니라 역사와 설화가 서로 상보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역사가 가지고 있는 사실성에의 지향과 함께 역사를 넘어서고자 하는 허구를 매개로 한 설화성이 인간의 정신적 욕구로 필수적이라고 이해되었다. 허구가 없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고 역사가 없는 현실에 충실할 수가 없다. 인간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역사와 설화와 노래를 배합하는 양상은 시대와 상황의 조건에 따라 다른 듯하다. 『삼국유사』에는 역사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 그 많은 설화들도 역사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다. 제주도 굿에서도 역사는 강조된다. 초감제의 천지 개벽의 내력, 한 집안이나 씨족의 수호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조상본풀이 등은 역사로서 기능을 한다. 대개는 문자 생활과 거리가 멀었을 제주도민들에게 이러한 역사는 문헌적 엄밀성으로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 『삼국유사』의 설화가 역사성을 가진다면, 제주도 굿의 설화는 현실에 긴박되어 있는 면이 많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래에 이르면 『삼국유사』에는 매우 적은 수만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제주도 곳에는 다양한 노래가 자주 불린다. 이러한 성격은 『삼국유사』가 상대적으로 지식인의 산물인 반면 제주도 곳은 무학자들의 구전문화라는 점에 기인할 것이다. 보다 이성적인 성향을 갖는 역사에의 지향과 보다 감성적인 성향을 갖는 노래에의 지향의 차이이다. 양쪽에서 설화는 이 사이에 놓여 있다.

이뿐 아니라 『삼국유사』 구도설화에서 의상 원효 뿐 아니라 조신 같은 사람도 부처를 만나는데 성공한다는 설정의 낯설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의문도 제주도 곳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된다고 보겠다. 제주도 무가의 주인공 뿐 아니라 부인물 또는 적대적 인물까지도 신으로 좌정하는 설정은 고승뿐 아니라 비속한 인물도 결국은 깨달음을 얻거나 부처를 만난다는 설정과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성과 속, 선과 악이 하나면서 반대 방향성을 가진다는 성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어느 정도 해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살폈다.

그런데 삼국유사가 기이편과 그 이하 편목을 함께 놓는, 고승전으로서는 특이한 구성 방식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본고는 그 점에 대하여 해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성 요소와 깨달음 또는 신격 좌정의 방식에서 유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만 지적했다. 일연 스님이 제주도 곳을 보았을 리 만무하며 제주도 곳이 삼국유사와 어떤 연관을 맺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본고와 무관하게 다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정식, 강소전, 송정희, 『동북 정명춘택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3.
 김환식, 『폴 리콤프의 이야기해석학』,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2011.
 김현선, 현용준, 강정식, 『제주도 조상신 본풀이 연구』, 보고서, 2006.

- 로제 카이유와, 권은미 옮김, 『인간과 썰』, 문학동네, 1996.
- 신연우, 『『삼국유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부처만나기』,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 _____, 『서사무가 초공본풀이의 짜임새와 미적 성취』,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 삼재완 편저, 『교본 역대시조전서』, 세종문화사, 1972.
- 이강엽, 『『삼국유사』 기이편의 서술원리』, 『열상고전연구』 26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 _____, 『『삼국유사』 흥법·탑상편의 탈신화화 전략』, 『어문학』 제110집, 한국어문학회, 2010.
- 이강옥, 『『삼국유사』의 세계관과 서술미학』, 『국문학연구』제5호, 국문학회, 2001.
- 이기백, 『『삼국유사』의 편목 구성』, 동국대학교개교80주년기념논총, 『불교와 제과학』,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_____, 『광청애기본풀이』, 『한국민속신앙사전 - 무속신앙』 상,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정천구, 『三國遺事와 中·日 佛敎傳記文學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0.
-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에서 본 숭고와 비속』,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1990.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허원기, 『『삼국유사』 구도 설화의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 현용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각, 2007.

A Comparative Study of *Samguk-Yusa* and 'Jeju Shaman Songs'

Shin Yeon-Woo*

Even though 《Samguk Yusa》 is a kind of Buddhist hagiography it is awkward that there are chronology of the kings of the Three kingdoms and the 'wonders', which consist of almost half as much as the whole volume. I wonder what was the intention of Ilyeon, the writer.

We can regard 《Samguk Yusa》 as a composition of three elements; record of history, compilation of folktales, and the songs and poems.

The folktales of 《Samguk Yusa》 are not fantasy alone. They are linked to actual life of the people in the Three kingdom period. The folktales of 《Samguk Yusa》 tie history and everyday life with the transcendence.

《Samguk Yusa》 appears to be telling us that we are supposed to see that history and literature(folktales) are not two, but one.

It may look that history and literature are contrary; when we regard history as time-space-limited and literature beyond it. And yet we human beings are requiring all at the same time. We are historical present, and yet we also are transcendence-oriented, trying to break the human limitations.

It is an idea against Mircea Eliade. He insists that human beings ignore history and tried to return to the beginning of the world. However, we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point that he emphasized only one side of the truth.

《Samguk Yusa》 does not ignore the great pain from history, and yet it also accentuates that the pain or history can not ruin ourselves. We can endure and are to be lead to transcendence. And there we find the songs and poems.

Keywords : SamgukYusa, Jejudo, Shaman Songs', history, folktale, song, enlightenment

*이 논문은 2019년 1월 20일 투고되어 2월 14일 심사가 완료되고
2019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